독서로 '불교 박사' 되어볼까

'집콕'하며 읽을 불교 서적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아졌다. 유튜브를 통해 힐링 콘텐츠를 시청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도 좋지만, 독서에 시간을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불교 서적이 있다면 한번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다. 도서총판을 운영하는 조계종 불교전문서점과 운주사에 불교입문 및 강설 · 불교사 서적을 추천받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쉽고 재미있게 성찰하자

최근에는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불교 입문서들을 찾기 쉽다. 〈벼리는 불교가 궁금해〉는 10대를 위한 불교 입문서다. '부처님은 신일까 사람일까'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등 불교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도서관 할아버지가 벼리라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하듯 잔잔하게 전한다. 중간 중간 삽입된 권용득 작가의 카툰들은 내용의 몰입도를 높인다. (글=변택주 · 그림=권용득/불광출판사 펴냄)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표만한 것이 없다. 이자랑 동국대 HK교수와 이필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조교수가 글을 쓰고 배종훈 불교 전문 카툰 작가가 그린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은 제목 그대로 불교 교리를 도표로 정리해낸 입문서다. 도표만 봐도 불교의 윤곽이 그려지고,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해준다. (글=이자랑, 이필원 · 그림= 배종훈/민족사 펴냄)

조계종 포교원이 편찬한 〈불교입문〉은 말 그대로 불교 입문서계의 스테디셀러다. 1996년 9월 초판 발행 이후 수차례 증보됐고, 2017년에는 개정판이 나왔다. 현재에는 조계종 신도기본교육 교재로도 사용 중이다. 부처님 생애부터 불교 전반 상식, 조계종사와 조직, 불자 예절 등 전반에 걸쳐 상세히 기술했다.(조계종 포교원 편찬/ 조계종출판사 펴냄)

초기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불자들에게는 초기경전 연구 · 번역을 선도했던 각묵 스님이 지은 〈초기불교입문〉를 추천한다. 저자 각문 스님은 초기불교의 개요부터 교학, 수행까지 전반을 상세하고 쉽게 풀어낸다.(각묵 스님 지음/초기불전연구원 펴냄)

〈불교인문주의자의 경전 읽기〉는 지금은 원적한 일지 스님이 남긴 글을 모은 것으로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월간 〈불광〉에서 연재한 것이다. 불자들이 삶 속에서 생각해봐야 할 24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주제를 경전에서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폈다. 불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삶과 연결하고 실천할 지를 고민하고 사유한 불교인문주의자의 사색과 성찰의 궤적을 따라갈 수 있는 책이다.(일지 스님 지음/어의운하 펴냄)

▫ 흥미진진 불교사 만나보자

역사 이야기만큼 흥미진진한 것이 없다. 역사는 한 분야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학문 분야이기도 하다.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사를 알아야 한다.

한국불교사에 대해서는 전문학자 2인의 책을 각각 추천한다. 사람에 따라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따라간다면 쉽게 읽을 수 있다.

먼저 정병삼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의 〈한국불교사〉는 불교의 한반도 전래부터 현대산업사회 불교까지 통사(通史)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사상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교를 다뤄내 흥미롭게 읽힌다.(정병삼 지음/ 푸른역사 펴냄)

최근 별세한 이이화 선생이 만년에 저술한 〈이이화의 이야기 한국불교사〉는 통사적이지만 그 시선은 민중으로 가 있다. 그렇기에 이이화 선생은 불교의 밝은 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밝기에 나타나는 그늘을 보여줌으로서 지금의 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이이화 지음/불광출판사 펴냄)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는 조계종 승가대학 교재지만 일반인이 읽기에도 어려움이 없다. 인도에서 불교의 태동부터 전개, 동남아시아 · 중국 · 대만 · 티베트 · 몽골 · 일본 불교의 역사를 개론적으로 풀어냈다. 하버드대학에서 수학한 명법 스님이 쓴 미국불교사 챕터도 흥미롭다.(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찬/ 불광출판사 펴냄)



따뜻한 감성 카툰 '힐링' 저절로

가족이 함께 읽는 불교 만화

카툰(cartoon)은 두꺼운 종이에 그려지는 밑그림을 의미했으나 현재에는 '한 컷으로 그리는 만화를 통칭하는 용어' 로 사용된다. 한 컷을 통해 함축적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카툰' 이라는 장르는 그런 이유에서 인지 선(禪)과 닮았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요즘 따뜻함을 전하는 한 · 중 · 일 '불교 감성 카툰' 을 전한다.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1세대 불교 웹-카툰 작가인 지찬 스님의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불교 카툰이다. 하체보다 더 커 보이는 상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2등신, 만 가지 표정을 넉넉히 담아내고도 남는 크고 둥근 머리, 늘 좌충우돌하지만 '이 뭣고?' 자세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동자승 '어라 스님' 은 지난 2016년 당시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렸다. 실제 어라 스님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는 스님이 2012~2016년까지 블로그를 통해 연재한 이야기를 선별해 묶어낸 것으로 소소한 일상에서 나오는 재치와 성찰을 지금 보아도 미소를 짓게 만든다. 이후 후속작이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기는 하다.

동자승의 하루

연인끼리 키스하는 모습을 본 동자승이 동그란 눈망을 깜빡이며 사부인 노스님에게 질문한다. "사부님, 저 사람들은 왜 서로 입술을 깨물어요?" 턱수염이 매력적인 사부는 이렇게 말한다. "서로를 몰라서 입술을 맞대는 거란다." 이 말을 들은 동자승은 부처님상과 나무에 입술을 맞대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수묵화풍의 그림 속에 동자승 이찬의 소소한 일상을 전하는 〈동자승의 하루〉는 중국 웨이보에서 2016년 10월부터 연재한 웹툰을 모아 발간한 카툰집이다. 따뜻한 감성의 이 웹툰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7억뷰를 기록했다.



동자승 이찬이 갖는 호기심과 질문들은 우리를 사유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 질문들을 따라가다보면 번접한 세상 속에 고요함을, 냉정함 속에서 온화한 마음을 찾게 해줄 것이다.

'부처와 돼지' 시리즈

불교만화를 하나만 추천하라면 단연 '부처와 돼지' 시리즈다. 1993년 일본에서 초판이 발행되고 10년 후인 2013년 신장판이 발행된 〈부처와 돼지〉는 2019년 현재 일본에서만 200만부를 넘어선 판매고를 올렸다. 광고회사 아트디렉터로 일하던 저자 고이즈미 요시히로는 이 시리즈에 대한 독자들의 꾸준한 호응에 힘입어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책에 등장하는 '덜돼지' 라는 의인화된 캐릭터가 겪는 현실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랑에 매였다가 실연에 고통받고, 좋은 대학과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마치 전쟁과 같은 경쟁을 치르다가 목표를 이루지 못해 자신을 탓하는 장면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여기에 직접적 해답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버릇에 있음을 지적할 뿐이다. 자신의 마음버릇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사물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된다. 전에는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생뚱맞다는 느낌마저 갖게 된다. 그렇게 시선이 바뀌는 것을 '발견' 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깨달음이 아닐까. 그 깨달음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신성민 기자

